

『태백산맥』에 나타난 민족주의 여성상

안숙원

국문초록

『태백산맥』의 문학사적 의의는 해방정국에 이은 6.25 전쟁과 휴전회담 동안 남로당계 공산당원으로 활약하다 한국현대사에서 공백으로 사라지다시피 한 빨치산의 진정성을 재현한 데 있다. 작가 조정래는 전남 해안의 벌교지방과 지리산을 무대로 남한의 우익 반공주의자들에 대하여 테러리즘과 전쟁도 불사한 이들을 자신의 민족이념인 '민중 민족주의'에 투신한 실천자들로 보았다. 컨텍스트 차원에서 그것은 1980년대의 정치적 민주화운동과 분단 극복을 위한 민중의 통일 의지를 반공이데올로기에 약용하는 체제 도전적인 소설, 레드 콤플렉스의 공론화라는 점에서 진보의 드라마이다.

또한 당시 좌우의 이데올로기의 침여한 대립으로 남,북한 정부 어느 쪽도 중도 좌파의 입지를 허용하지 못하고 개인의 귀속을 강요하는 억압장치로서 국가와 그것의 상대화를 추체험하게 해 준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대하소설 『태백산맥』이 거둔 빨치산의 진정성과 레드 콤플렉스의 공론화, 꽃에 관한 담론의 시적 감수성, 지리산을 비롯한 소설공간적 지지(topography)의 자연생태적인 국토애, 서술층위에서 초점주체의 다변화를 통한 다양한 인식 편차, 전라도 방언의 탁월한 구사, 따위 텍스트의 여러 미덕에도 불구하고 여성사적 측면에서는 계급투쟁을 우선시하여 여성 억압적 요소를 등한시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이 작품이 남성에게 초점이 맞춰진 남성민족주

의로서 젠더를 초월하진 못했다"는 뜻이다. 어차피 민족이 젠더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어서 민족주의와 젠더의 길항은 『태백산맥』만의 문제가 아닌 페미니즘의 과제라고 생각된다.

- 핵심어 : 민중 민족주의, 남성민족주의로서의 젠더, 여성억압, 민족주의와 젠더의 길항.

1. 민족주의와 젠더

민족이란 공동의 삶을 방어하고 옹호하는 집단이다. 집단적 주체성 동일시의 욕망이 민족을 카테고리화하는 것이다. 앤더슨은 민족은 서로 만나지도 알지도 못하는 구성원들의 상상의 공동체로서 민족주의가 억압적인 것은 민족이 배제와 동일시의 논리로 상상된 공동체이기 때문이라고 했다.¹⁾ 릴라 간디는 민족주의가 민족신화, 풍속, 따위에로의 전근대적인 전통에의 애착을 통해 모더니티의 편리한 타자로 구성되었다고 비판한다.²⁾ 그래서 민족주의는 산업화로 인한 민족의 발전적 전망과 토착문화주의에 집착하는 내향성이라는 야누스적 면모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이다. 톰 네언은 민족주의의 비합리성으로 편견, 감정적, 집단이기주의, 공격성을 드는데 민족주의의 구조적 취약성은 본래 불안정하고 자기 파괴적 담론이기 때문이다.³⁾ 우에노 치즈코도 민족이란 배타적 카테고리의 전형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으며 그런 배타성을 가시화시킨 게 외국인 혐오증과 인종주의, 증오심, 전쟁이라고 했다.⁴⁾

료타르가 거대서사의 종말이 포스트모던 사고라고 하였듯이 우연이 역사에 개입하는 빈도가 높은 현대의 상황을 목도하며 진보사관에 대한 확신이 무너진 오늘날까지도 우리 사회에선 민족주의에 관한 한, 여전히 그것

1) 릴라 간디, 이영욱 역, 『포스트 식민주의란 무엇인가』(현실문화연구, 2000), p.184

2) 위의 책, p.137

3) 릴라 간디, 앞의 책, p.134

4) 우에노 치즈코, 이선이 역, 『내셔널리즘과 젠더』(박종철출판사, 2000), p.91

의 인식적 폭력성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 같다. 특히 자민족중심주의의 패권적 담론이 무성하다. 요즘 아시아 대중문화계에서 부는 한류 열풍에 대해 우리가 우쭐한 감정을 갖는 경우도 그런 일례라 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민족주의는 방어적 민족주의와 공격적 민족주의로 나눈다. 전자가 주로 민족의 생존을 두고 제국주의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식민지 원주민의 투쟁을 의미한다면, 후자는 부국강병의 민족주의다. 이를 달리는 선한 민족주의/악한 민족주의, 합법적/ 비합법적 민족주의로 표현하기도 한다. 민족의 경계는 영토적 경계 못지 않게 신화·상징의 역사적 복합물의 고유 여부에 의해 결정되는 까닭에 사이드도 모든 민족주의는 정체성의 문제라고 했던 것이다.⁵⁾ 또 임지현은 농민이 민족 정서의 가장 강력한 객관적 담지자라며 민족어는 대부분 농민들이 보존해 온 고유한 구어체이지만 그렇다고 농민이 적극적인 민족의식을 가졌다고 보긴 어렵다고 말한다. 곧 이들의 집단적 자의식은 민족이나 국가 같은 큰 단위를 지향하기보다 고향 혹은 촌락공동체에 경사되어 있어 원초적 집단 정체성과 민족의식을 구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전자에서 후자로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선 같은 민족체 내에서 우리/그들의 장벽이 제거되어야 함을 주장하기도 한다.⁶⁾

민족주의가 제국주의, 식민주의와 공동의 태반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것들이 모두 총체성, 전체성의 이데올로기로서 근대의 산물이고 그것은 근대의 또 다른 한쪽인 근대적 개인의 탄생과 대척적일 수밖에 없다. 그리하여 단계 신체호로 대표되는 개화기 민족주의자들에게 개인주의는 민족주의의 적대 개념이었으며 그들 민족주의자들에게 我/非我が 존재할 뿐이었다.⁷⁾ 특히 여성들이 주체적 자아로 발돋움하려는 페미니즘의 견지에서 이런 민족주의는 젠더 억압적 요소로 작용할 여지가 충분하다. 말하자면, 민족 정체성과 젠더 전체성의 헛돌기에서 여성들이 한국인이라는 하나의 단일 주체로 균질화되고 만다는 점이다. 그러나 개화기 민족담론이 불붙기

5) 에드워드 사이드, 김성곤, 정정호 역, 『문화와 제국주의』(도서출판 창, 1995), p.466

6) 임지현, 『민족주의는 반역이다』(소나무, 2000), p.71

7) 고미숙, 『한국의 근대성, 그 기원을 찾아서』(책세상, 2001), p.42

시작한 때는 국권을 상실한 민족 부재의 상태에서 민족의 존재를 외쳐야 하는 비장함이 있었고, 한국전쟁 때는 민족의 원초적 구성단위인 가족의 이산이 파천황의 기세로 급류에 휩쓸리던 때라 민족주의와 젠더는 갈등을 내재한 채, 통합이 불가피했다. 란지트 구아가 민족주의는 공동의 적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하위주체들의 에너지를 체계적으로 동원하고, 규제하며, 훈련, 동력화하여 민족주의 자격을 획득한다⁸⁾고 말한 것이 한국 현대사에도 부합된다.

『태백산맥』은 북한공산주의, 남한자본주의, 남로당계 공산당원들이 해방정국의 '새 나라 만들기'로 어수선했을 틈 타 서로의 노선을 정당화하는 명분쌓기에 민족주의를 이용하며 헤게모니 싸움으로 피를 흘린 민족내전을 다룬 역사소설이다. 작가 조정래가 1989년 3부작 전10권으로 발표한 이 대하소설은 "한국 분단소설의 새로운 전진"⁹⁾으로 평가되기도 한 진보의 드라마이다. 『태백산맥』의 진보성은 작품 내용면에서 해방공간과 6.25전쟁, 휴전회담까지 좌우 이념투쟁을 계속하며 치열하게 살다갔지만 대한민국 현대사의 공백으로 사라지다시피 한 빨치산의 진정성을 공론화한 것과 컨텍스트의 차원에서 근대화 프로젝트에 의해 인권, 복지, 시민사회의 자율성 따위를 국가에 반납한 채, 숨가쁘게 달려온 한국인들이 스스로를 돌아보기 시작하면서 분출된 1980년대 민주화운동 및 민족통일 열기라는 민중 이데올로기의 시대상황 때문으로 보인다. 이 작품에서 빨치산의 실제적 진실(truth)은 어디까지나 작가의 텍스트 구성물일 뿐, 역사적 사실(fact)에 단 하나의 진실은 없다.¹⁰⁾ 그래서 역사는 수정(revision)과 재해석을 거듭하는 담론 투쟁의 장이라고 하는 것이다.

빨치산이란 해방 이후 남로당 계열의 유격대를 지칭하는 만큼 동서냉전

8) 릴라 간디, 앞의 책, p.139

9) 이동하, 「한국 분단소설의 새로운 전진」, 『문학의 길, 삶의 길』(문학과지성사, 1987), p.67 필자는 소설의 장르개념도 아니고 소재 차원의 '분단소설' 따위의 명칭에 거부감을 갖지만 용어란 널리 쓰다 보면 낯설지 않게 되는 것 같다.

10) Hayden White, *Tropics of Discours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Baltimore & London, 1978), p.21

의 국제관계 속에 반공을 국시로 하는 남한의 지식인들이나 대중들에게 빨치산의 실체가 어떠한지, 그들은 늘 북한 인민공화국을 추종하는 용공세력의 대명사처럼 거북스러운 단어였던 게 사실이다. 그 동안 이병주의 『지리산』을 비롯, 빨치산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대부분 반공 이념의 강화와 맞물려 거의 빨갱이 공포의 담론 유포 수준이어서 1960년대 최인훈의 『광장』보다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한 터에, 작가 조정래는 과감하게 이 터부를 깨뜨리고 자신의 민족이념을 '민중 민족주의'라 이름하며 『태백산맥』에다 빨치산을 민중 이데올로기의 실천자들로 형상화한 것이다. 21세기 초엽에 이른 지금이야 반공주의는 더 이상 한국사회의 지배적 담론도 아니고 반공/용공의 이분법이 한국사회의 갈등을 효과적으로 보여주지도 못하지만¹¹⁾ 1980년대만 하더라도 많은 한국인들은 아직 레드컴플렉스에 강박돼 있었고 빨치산이란 말 역시 '민중'과 함께 체제도전의 위험한 용어로 간주되던 시대 상황이었으니 그럴만도 했다. 물론 민중이란 개념이 단순치 않다는 것은 바르베리스토 지적한¹²⁾ 바 있듯이 여기서 그 용어를 논란하자는 게 아니다. 다만 1980년대 남한 운동권 세력의 전유어가 되다시피 한 민중이란 낱말을 선뜻 입에 올리기가 어려웠던 사정을 언급하려는 것이다. 그 반체제적인 민중이데올로기를 『태백산맥』에서 빨치산들을 통해 천착해냈다는 점에서 작품의 진보성을 일컫게 된 것이라 생각된다. 그렇다면 이 진보의 드라마에서 민족의 절반인 여성은 어떻게 형상화되어 있는가.

11) 권혁범, 『민족주의와 발전의 환상』(술 출판사, 2000), p.142

12) P. 바르베리스토, 배영달 역, 『리얼리즘의 신화』(백의, 1995), pp.278-279

바르베리스토는 발작의 『인간회극』시대만 하더라도 민중은 하나의 계급이 아니었다고 한다. 그 이유는 민중은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시대의 민중은 아직 공장 노동자가 아니라 자기 집에서 일하는 장인들이었다. 김윤식 교수도 민중의 개념을 육체 노동자로 규정할 때 민중중심의 역사관의 한계를 거론한 바 있다. 김윤식, 정효용, 『현대 한국소설사』(예하, 1993), p.460

작가 조정래는 민중에 대한 개념을 따로 정의하진 않았지만 이학송이나 서민영 같은 등장인물을 통하여 지식계급=착취자, 상인=부르주아라는 것으로 보아 경제적으로 못가진 자, 교육적으로 못배운 자를 포함 남한사회의 도시노동자, 농어촌의 기본층, (백정, 무당, 머슴.....)과 농민들을 가리키는 것 같다.

본고는 『태백산맥』을 대상으로 한국 민족주의의 한계와 문제점을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분석, 가부장사회가 민족주의라는 메카니즘을 통해 반영적인 담론과 문화, 제도를 정당화한 것을 심문하고자 한다. 그러나 한국 민족주의가 여성에게 피해만 입혔다면 여성은 수동적일 뿐 역사의 주체로서 아무런 역할도 못했다는 면책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보다는 여성이 민족사에 기여한 부분을 간과하지 말아야 자율적인 주체성을 가진 여성이 되는 것이며 그 증거가 『태백산맥』에도 나타나 있다. 내포작가의 남성중심적 민족주의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이 존재하는 것은 텍스트의 무의식 때문이겠지만 필자는 그것들을 유념하고 싶다. 우리가 분석하는 것은 기호인지 사실이 아니다. 텍스트의 리얼리티는 카테고리의 정치성을 둘러싼 담론 현장에 있다.

2. 『태백산맥』의 민족주의 여성 음화

1) '별밭, 꼬막'의 젠더 중첩상징 : 젠더화된 노동과 섹슈얼리티

『태백산맥』의 시간적 배경은 1948년 10월 20일 여수와 순천에서 일어난 여순 반란사건부터 6.25 전쟁의 휴전회담까지 약 5년간이다. 이 소설은 해방 이후 우리 현대사에 뛰어난 슬한 남성영웅들이 서로의 힘 겨루기로 텍스트를 채우며 명멸하는 만큼 남성적 연술이다. 그에 따라 김범우, 염상진, 염상구, 손승호, 하대치를 비롯한 기라성같은 남성인물의 활약상과 비교할 때, 작중 여성인물들의 존재는 남성의 보조자 역할이거나 남성들을 돋보이게 하는 돋보기 인물(hoil-character)이 대부분이다. 여성들의 몰주체성은 이름의 半失名性에서도 드러난다. 작중의 남성들은 자아 정체성의 표지로 개인적인 이름 - 하다 못해 솔두경이니 천점바구같은 별명 - 을 가진 데 반해, 여성들은 소화, 이지숙, 김미선, 강경애, 등 몇 사람을 제외하곤 외서댁, 들몰댁, 죽산댁, 호산댁, 남양댁, 장흥댁, 조성댁, 샘골댁, 감골댁, 등등, 친정 동네의 집단적 자아 속에 함몰되어 있을 뿐이다. 이 작품

에서 개아로서 이름을 가진 여성과 반실명 여성의 이야기 가치상 비중은 별 차이가 없다. 하지만 서술층위에서 여성인물들은 각각 초점주체로 초점 대상에 대한 자신들의 지각이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초점주체의 다변화를 통해 자기 목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치 연극에서 행인 1, 2, 3,..... 하는 식으로 엑스트라에 불과한 것이 『태백산맥』의 여성인물들이다. 그러므로 이 거대서사의 틈새에서 젠더를 발견하기란 남성의 음화로 각인된 여성상을 검토하는 작업에 지나지 않는다. 이른 바 사이드의 대위법적 읽기¹³⁾가 이미 정전의 반열에 오른 텍스트의 독해에 도움이 된다고 하겠다.

이 소설의 주요무대가 한반도의 서남해안 별교읍인데 그 곳은 이웃 보성군보다 행정구역은 작지만 일본인이 간척지로 개간한 <중도> 들판을 끼고 드넓은 평야와 항구로서 물산 왕래가 빈번해 상업인구의 유입이 많았다. <中島>니, <昭和다리> 같은 일본식 지명에서 보듯 왜색이 짙고 일찍부터 개명된 소읍인지라 별교는 자연과 혈연이 우선하는 전통적 촌락공동체보다는 근대적 도농복합체에 더 가까운 공간적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었다. 그 래 그런지 주민들은 시골 촌사람치고 세상물정에 밝았으며 <별교 가서 돈 자랑 말고 주먹 자랑 말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돈이 흔했다. 그러나 일인들과 지주가 돈을 독점한 까닭에, 별교의 <그 도회적이고 개방적인 분위기, 활달하면서도 억센 것같은 사람들의 기질>이 계급과 신분의 이해관계상 침해하게 대립할 수밖에 없는 곳이기도 했다. <전라도가 육설의 고장인 것도 가진 자'의 수탈에 대한 '못 가진 자'의 한이 시무쳐서>라는 작중인물 손승호의 진단대로 별교가 그러했다. 해방과 같은 역사의 전환기를 맞이하자, 토지개혁에 대한 방법을 둘러싸고 가진 자/ 못 가진 자의 대립은 좌우익으로 갈라져 주민들은 각자 그 처해진 입지조건에 따라 어느 한쪽을 지지하게 된다. 무상몰수, 무상분배의 토지개혁과 친일반역자를 처단하는 사회혁명을 위한 좌익 공산주의자들과 친일 지주세력이 포함된 우익의 자유민주주의자

13) 사이드의 대위법적 독서란 텍스트 속에 침묵되거나 주변으로 밀려나거나 이데올로기적으로 묘사된 것들을 끌어내고 확장하고 강조하려는 노력을 말한다.

에드워드 사이드, 앞의 책, p.138

들로 나뉘면서, 마을은 가해자/피해자 관계가 되고 이웃끼리 살벌해진다.

남한에 토지 유상분배를 골자로 하는 농지개혁법이 공포된 지 얼마 후, 민족제일주의자로 순천중학교 역사 교사였던 김범우는 서울에 체류 중, 백범이 피살당했다는 보도에 접하고 크게 실망한다. 마침 김범우의 동료교사 손승호가 보도연맹 거부사건으로 서울로 피신해 와서 두 사람은 김범우의 하숙집에서 며칠 동안 함께 지낸다. 그들은 별교 주둔 계엄군 지휘관이었다가 전출된 심재모, 해방일보 기자 이학송과 서울 시내 술집에서 만나 이 땅 인구의 8할이 농민이고 그 중 8할이 소작농이니 농민문제가 곧 나의 문제, 전국민의 문제인데 이승만정권의 농지개혁법은 국민을 배신한 정책이라고 성토했다.¹⁴⁾

빨치산의 시점에서¹⁵⁾ 볼 때 미군의 남한 진주는 민족주의세력을 경원하고, 공산당활동 불법화, 친일반역세력 옹호, 경찰력의 확대, 대구 10.1폭동(1946)을 계기로 남쪽 전역의 인민위원회 조직 파괴를 시도했기 때문에 제주도 4.3사건(1948)이 발생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남한 단독정부 수립에 이어 여순사건(1948)이 일어나고 사건 수습차 토벌대가 주둔하면서 계급과 이데올로기 투쟁은 더욱 격화되어 온 별교 읍내가 소용돌이에 휘말려든다. 그 와중에서 대개 소작인들인 '못 가진 자'의 삶은 좌익의 도전에 분노한 지주들의 횡포로 더욱 고달픈 수밖에 없었다. 진창이요, 수렁같은 그들의 삶을 상징하는 것이 별교 포구 빨밭이다.

꼬막은 별교의 명산물로 꼬막을 맛나게 요리하는 것에서 별교여성의 음식솜씨를 평가할 정도였다. 특히 무당 素花의 꼬막무침 솜씨는 일품이었다. <간간하고 즐깃즐깃, 알큰하고 비릿한> 꼬막의 속살을 데쳐 갖은 양념으로 무쳐 먹는 맛이 그만이지만 그 껍질은 아이들의 소꿉놀이용으로도 쓰

14) 본고에서 인용하는 조정래의『태백산맥』은 해냄출판사, 1989년 제2판본을 텍스트로 한다. 제5권, pp.284-285

15) 텍스트는 빨치산들의 처지에 많은 지면을 할애하고 있어 서술자의 이념 편향성을 드러낸다. 서술자는 중립을 지키려고 <여순사건>이라고 하여 좌익의 <여순 병란>, 우익의 <여순반란>과 차별화하고는 있으나 그런 부분은 많지 않고 또 서술 층위에서 <왜놈, 일본놈> 같은 호칭 따위는 좌익쪽의 표현을 더 따르고 있다는 증거이다.

이고 장독대나 고살길에 뿌려져 도로포장에 사용되기도 했다. 길 위에 박힌 해맑은 유백색의 꼬막 껍질은 좌우익으로 등을 돌린 염상진-염상구 형제의 어머니 호산댁의 가슴 속의 한의 상징이고 꼬막의 흰빛은 素花의 흰 꽃 이미지와 더불어 가난한 농촌 아낙네들이 머리에 쓰는 흰 수건처럼 산스러운 그들의 삶을 비유하기도 한다. 소작인의 아내들은 지주에게서 소작지를 빼앗기고 벌교 개펄에 나가 꼬막을 캐서 생계를 보냈다. 엄동설한이면, 빨밭에서 여자들은 살을 찢는 겨울 바닷바람에 바지를 허벅지까지 걷어올려 맨살을 드러낸 채 한쪽 다리는 널빤지를 타고 나머지 다리로는 빨밭에 넣고 꼬막을 더듬어 찾는데 소금기 있는 빨은 얼음물보다 차갑다고 했다. 들몰댁의 시아버지 판석영감에 의하면 <남자 하는 일 중에서 제일 천하게 여기는 것이 배타는 일이라면, 여자 하는 일로 제일로 천한 것이 꼬막 캐는 일이라는 말은 기실 그것들이 가장 힘든 노동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엄혹한 생존의 현장이기는 배 타는 일이나 꼬막캐는 일이 마찬가지로이지만 꼬막은 여자의 노동이라는 점에서 젠더화되어 있다. 이는 오뉴월 염천에 쫓그리고 앉아서 온종일 비탈진 밭고랑을 호미질하는 여성과 다를 바 없다. 해서 강원도 산간 지방에는 <비탈보지>가 있다던가. 날이면 날마다 비탈진 밭에서 김을 매다 보니 여성의 성기조차 비뚤어지더라는 얘기. <그녀들의 모습은 그대로 빈궁의 극한에 달한 표본이었고 모진 목숨의 상징이었으며 끈질긴 생명력의 표상이었다. 아니 그것은 눈물이고 아픔이고 한이었다.>¹⁶⁾

그러나 빨밭의 꼬막은 젠더여성의 노동만을 상징하는 것은 아니다. 꼬막은 조잡지의 외관상 이미 관습적 여성상징이거니와 동시에 그것은 여성의 입술이자 생식기로서 둘 다 에로스의 비유이다. 아래의 것이 위로 돌출되면 입이요, 위의 입이 아래로 찢어진 것이 여성 성기이니 한없이 빠져드는 빨의 속성이 여성 바기나에 대응하면서 빨밭과 꼬막은 노동/ 에로스로서 젠더 중첩 상징이 된다. 문제는 이 작품에서 꼬막의 섹슈얼리티가 이성애 중

16) 『태백산맥』 제4권, p.79

심이라는 점이다. 벌교사람들은 꼬막 맛이 졸깃졸깃하기가 여성의 성기와 같다고 표현했다. 김종연은 동네 머슴방에서 기생 설매의 房中術을 판소리 투로 흉내내며 여자의 성기관 겨울 꼬막 맛이어야 한다고 말한다. 염상구도 외서택을 겁탈하고 나서 그녀의 성기가 겨울 꼬막맛이라고 못내 아쉬워하는가 하면, 하대치는 장터택을 〈남자 굶은 조갑지가 연장 보고 짹짹 아가리 벌리는 것〉같다고 한다. 이런 말은 모두 남성이 느끼는 새디즘적 에로스의 표현이지만 여성인물들도 팰로센트리시즘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장터택의 하대치의 페니스 매혹은 남근중심주의의 극단적 예다. 김종연의 한담속 설매는 장흥골 장가 마누라에게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는 섹스강습으로 〈소꼬리 뱅뱅, 조리질 뱅뱅, 물명태 뱅뱅〉 따위를 가르쳐주면서 구멍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라고 핀잔을 준다. 게으르기만 하고 천하에 쓸모없는 장가였으나 그의 에로스로 장가 마누라는 온갖 고생을 기꺼이 감수하며, 장터택은 하룻밤에 여섯 번이나 일을 치른 하대치의 페니스를 움켜쥐고 빨치산을 위한 일에 헌신하겠노라고 다짐한다. 송경희는 김범우와의 관계 후에 그가 자신의 동물적 섹스에 혐오감을 갖고 씩씩해 하는 사이, 여자로서 〈행복한 행복〉이라고 무척 만족스러워 한다. 이 여성들 모두 페니스 선망의 이성애주의자들이다. 빨밭이 바기나의 대유라면 선덕여왕의 여근곡 설화에서 보여준 여성 섹슈얼리티의 공격적 속성일 수도 있는데 내포작가는 오직 남성이 느낀 성적 쾌감이나 여성의 페니스 매혹만을 전경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여성인물들이 대부분 남성의 보조기능에 그치고 있는 가운데 소화는 서사적 발단부에서부터 등장하고 나중에 빨치산 정하섭의 아들을 낳아 〈民承〉이라 이름지어 민중의 뜻을 계승하겠다는 의미로 소설 『태백산맥』의 주제의식을 대변하고 있다. 그녀는 아마도 이 작품에서 작가가 가장 애착을 가진 여성인물일 듯하다. 그녀는 정하섭의 조부 정참봉과 무당 월녀의 딸이어서 정하섭에게는 고모가 되는데 둘은 생질간인 줄도 모르고 사랑을 나눈다. 월녀가 소화와 정하섭의 관계를 눈치챘지만 중풍환자인 월녀는 언어기능이 마비되어 끝내 아무말도 못하고 소화의 사랑에 대한 충격으로 죽고 만다. 수줍디

수줍었던 소화는 정하섭과의 관계가 거둬질수록 자신의 섹슈얼리티에 눈을 뜨며 곳의 엑스터시와 성적 쾌감이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소화에게 에로스와 신내림의 발열현상이 동일시되고 있는 것이다. 가끔 그녀는 정하섭과의 성경험을 반추하다 혼자 옷을 벗어던지고 나신이 된다. 이런 면에서 소화는 한승원의 『바다의 빨』에 등장하는 용녀에 대비되는 남성 아니마의 전형이다. 『태백산맥』과 『바다의 빨』은 작품 배경이 남도 바닷가인 것도 그렇고 신비적 코드와 리얼리스틱 코드가 병행하는 플롯 등에서 여러 모로 상호텍스트적이다. 『바다의 빨』에서 지주인 윤철보와 무당 당골네 사이에서 태어난 용녀는 이복남매인 윤희수와 연인관계인데 바다 연안 양식권을 놓고 대립하는 두 마을의 문제 해결사로 귀향한 윤희수처럼, 『태백산맥』에서 소화의 연인 정하섭도 아버지 정현동 사장의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치부에 반기를 들고 계급투쟁에 뛰어들다. 용녀가 신비적 코드로 환상적인 에로스의 스토리라인을 주도하는 반면, 희수가 마을의 양식권 갈등이라는 리얼리스틱 코드로 현실문제의 한 스토리축을 이끄는 것처럼, 소화도 늘 쫓겨다니는 정하섭에게 들쭉같은 향기로 다가오는 에로스의 충족인가 하면, 정하섭은 빨치산 전사로 현실 변혁에 투신하는 남성인 점에서 두 작품의 소설적 열개가 비슷하다. 또 용녀/윤희수나 소화/정하섭의 근친상간이 부모세대의 불륜을 모르고 저질러 진 것이며 그 때문에 용녀와 소화의 父系 정체성인 姓이 없다는 것도 일치하고 있어 공교롭다고만 할 수 없는 문화적 코드의 상위텍스트를 환기시켜 준다. 정하섭은 소화가 사람들의 감시를 피해 자기를 보살피고 위험한 심부름도 마다 않는 지극 정성인 걸 보며 <종같은 아내를 얻는 남자가 가장 행복한 남자>라고 생각한다. 계급을 타파하겠다는 지식인 빨치산 전사의 머릿속에 남/녀, 주/종관계의 전통적 가치관이 온존하고 있는 것이다. 소화 역시 에로스의 정음을 잠깐 내비치기만 할 뿐 서술자는 그녀의 욕망이 정하섭의 아기를 낳는 일, 오직 모성애의 갈망임을 여러 차례나 언급하고 있다.

소화의 낭만적인 사랑에 비해 외서택의 섹슈얼리티는 매우 당혹스럽다. 강동식의 아내 외서택의 섹시한 외모와 타고난 관능적 매력은 과거 동네 불량배였던 염상구의 눈길에 포획되어 강동식이 빨치산으로 입산한 것을

빌미로, 그녀는 성폭력의 대상이 된다. 외서택은 처음엔 분하고 서러운 마음에 염상구를 벌레 보듯 했지만 차츰 염상구와의 관계에서 마음과는 달리 자신의 몸이 능동적으로 변해감을 깨닫는다. 그렇지만 내포작가는 외서택의 주체적인 섹슈얼리티를 더 이상 텍스트화하지 않고 남편에 대한 죄의식으로 애써 평가절하해 버리고 만다. 외서택의 죄의식은 텍스트 문면에 누차 제시되고 있는데 그것은 그녀의 입산 동기와 장차 빨치산 여전사로 돌입하게 될 그녀의 성격규정에 내포작가가 지나치게 얽매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이 『태백산맥』의 특색의 하나인 이념적 경직성의 단면이기도 하다.

2) '몸씻기 마을굿' 과 현대판 환향녀 : 남성민족주의의 퇴행성

『태백산맥』의 남성민족주의자들은 미군에게 강간당한 여자들을 정화시키기 위해 <몸씻기 마을굿>을 벌인다. 미군의 강간 사건은 별교 주둔 계엄군 사령관 심재모가 태백지구로 전출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짝사랑하던 가게집 딸 순덕이 무작정 단양에 있는 그를 찾아갔다가 목격한 것이다. 그 곳 부녀자 21명이 미군의 성폭력으로 두 처녀가 자살하자, 나머지 피해자 여성들을 위해 마을에선 굿을 올린다고 했다. 마을사람들은 <그 악독한 일본놈들도 안 하던 짓을, 이 땅 여자들이 즈덜 첩도 아니고 중도 아닌 세상에> 미군들이 만행을 저질렀다고 분노에 치를 떨었다.

<몸씻기 마을굿>의 현장에 나타난 피해자 여성 열 아홉 명은 모두 흰 치마 저고리를 입고, 머리에는 두 눈만 내 놓은 삼베자루를 목밑까지 덮어쓴 채, 죄인처럼 얼굴을 가리고 있었다. 굿은 어스름 저녁 당산나무 아래서 시작되었는데 남자라곤 마을의 최연장자 노인을 제외하곤 아무도 없었고 아이들도 참석하지 못하게 해, 피해 당사자들과 칠팔십 명의 여자들뿐이었다. 굿을 주관하는 그 동네 무당이 강간 피해자들을 <죄없는 죄인> 나오라고 차례로 불러내 한 줄로 세우니, 노인은 비분강개한 음성으로 마을굿을 하게 된 경위를 천지신명께 고하고 용서를 구한다고 했다.

차고로 남자는 남자는 지조요, 여자는 정절이라 하여 그것을 목숨처럼 존귀하게

보존하고 지켜야 하는 것이 우리네 법도요, 미풍양속으로 귀히 여겨왔습니다. 하여 정절을 함부로 더럽히는 방탕한 여자는 사람 대접을 하지 않았던 것이 우리의 엄한 규범이옵니다.....그러하나 정절이 더럽혀졌다고 하여 다 똑같은 것은 아니올시다. 정절이 더럽혀졌되,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는 법이니 앞서 말한 인륜 도덕을 깨치는 줄 변연히 알면서도 음탕한 짓을 자행한 경우가 그 하나요, 다른 하나는 생명을 내걸고 정절을 지키려 했으나 여자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겨낼 도리가 없는 강압으로 정절을 더럽히게 된 경우올시다.....오늘 이리 몸 씻는 마을굿을 함께 올려 천지 신명께 죄를 빌고 그 용서를 받자와 우리 다 함께 우환으로 입은 상처가 덧나지 않고 아물어 새 광명으로 살기를 축수하려는 바이올시다.”¹⁷⁾

그러면서 동네여자들을 널리 모이게 한 소이는 <이 기막히고 통분할 곳을 구경하라는 것이 아니라 같은 여자로서 진정한 마음으로 위로를 하여 주는 한편 저들이 몸을 씻고 정절을 되찾는 증인이 되어달라는 뜻에서 또 아직도 난이 계속중이오니 다같이 경각심을 갖고 우환을 막고 피할 방책을 강구하라는 뜻도 들어있다.>고 했다.

천지신명께 마을에 더 이상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말라고 기원드릴 수는 있겠지만 피해자 여성들이 용서를 구해야 할 대상은 아니다. 신령님께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데 죄를 청해야 할 일이 <죄없는 죄인>의 모순어법에 걸려 있다. <죄없는 죄인>은 가부장사회의 모랄로서 남성에게 정조를 못지킨 게 죄라면 죄다. 무당은 처음엔 피해자 여성들더러 <죄없는 죄인>이라고 했다가 나중엔 노골적으로 “죄진 몸 씻으러 가세.”라고 사뭇 명령조로 다그친다.

<몸씻기 굿>의 절차는 무당의 지시에 따라 강가 모래밭에 마련된 물통에 소금을 한 바가지 붓고 거기에다 한 바가지씩 강물을 열 번에 걸쳐 길러 염수를 만든 후 속곳 벗은 몸으로 그 속에 들어가 염수씻기를 하고 나와 다시 강물에 들어가 목까지 차오르는 물 속에서 청정수 씻기를 세 번 반복한다.

17) 『태백산맥』 제7권, pp.255-256.

그 때마다 무당은 “죄진 몸 씻으러 가세.....청정수로 거뭇 씻자.”고 소리쳤다. 그리고는 <새 몸과 새 마음을 내려준 천지신명과 제왕제신의 하해와 같은 은공에 감읍하고 그 뜻을 귀히 받들 것을 약조 드리는 뜻으로 사배의 절을 올리고> 굿이 끝난다.

이는 병자호란 당시 청나라에 인질로 붙잡혀갔다가 속환가를 지불하고 귀국한 조선여성들로 하여금 서울로 들어오는 길목의 홍제천에서 목욕하게 함으로써 오랑캐한테 유린당한 정조가 깨끗이 되었다며 당사자의 가정에서 받아들이라고 임금이 어명을 내렸을 때, 그 여성들을 ‘還鄉女’라 일컬었던 사례를 상기시킨다. 그녀들의 목욕은 더럽혀진 정조를 정상화하기 위한 정화작용이었던 셈이다. 중세기의 환향녀와 같은 이 여성들의 소외는 남성중심적 순결이데올로기로서 비판받아 마땅하다. 정작 이민족에게 핍박받은 민족의 딸들이 어떤 고통을 겪었는지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여성 신체의 정화를 문제삼은 동족 남성의 상처내기가 환향녀의 영상에 드리워져 있다. 동시에 그것은 짓밟힌 민족의 자존심 회복의 제스처이기도 했다. 이태 전인가, 미군 병사에게 난자 당한 기지촌 여성 윤금이사건에서 외국 남성에게 유린당한 한국인 윤금이의 몸을 제국주의적 물질 폭력의 증거로서 피해당한 남녀 한국인 민족 공동체의 은유로 인식하고 민족의 수치라며 분개했던 한국언론의 보도태도가 생각난다. 이를 민족적 자존심 차원으로 보는 것은 감상적 민족주의다. 이렇게 성애화되고 민족주의화된 섹슈얼리티 관점은 미군에게 성폭행 당한 여성 생존자들을 더욱 주변화시킬 뿐이다. ‘몸씻기 마을굿’이 외국인 남성에 의한 성 폭력의 피해자 여성에게 오히려 사회적 소외를 강요했다면 누가 그녀의 인생을 보상해 줄 수 있는가. 그런 방식으로부터는 차라리 덮어두는 것이 더 낫지 않았을까. 강간 피해자들에게 삼배자루를 씌우는 따위는 ‘주홍글자’의 헤스터 프린처럼 상처의 각인이 아니고 무엇이라? 그 마을 무당이 피해자 여성들을 가리켜 <죄없는 죄인>이라고 표현한 것이야말로 민족주의 틀 안에서 여성문제 해결이 불가능함을 입증하는 절묘한 말이다. 이것은 『태백산맥』의 남성 민족주의가 정조 이데올로기에서 퇴행적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전통사회의 정조란 여성

이 남성에게 바치는 것, 자의든 타의든 한번 더럽혀지면 금이 간 사기그릇 신세라고들 했다. 미군병사에게 강간당한 단양의 두 처녀를 자살에 이르도록 한 것은 순결이데올로기가 내면화된 그들의 죄의식 탓도 있지만 가부장 사회에 대한 항의의 표시라고도 할 수 있다. 나머지 피해 여성들이라고 깃밟혀서 더럽혀진 정조가 몸씻기 의례로 정화될 수 있다고 믿었을까. 애초에 지켜야 할 정조며 씻어서 치유될 정조가 아니어야 했다. 여성 성폭력 피해자의 중요 개념은 여성의 인권과 성적 자기 결정권이다. 그런데도 이 '진보적' 소설 『태백산맥』의 내포작가는 여성사적 관점에서 섹슈얼리티에 관한 젠더의식이 무척 인습적이다. 소화는 정하섭에게 <처녀를 바치고> 외서택은 염상구에게 <몸을 더럽힌 것>을 남편 강동식이 알세라 전전공궁하며 자기 몸을 뺏드득 소리가 날 때까지 물에 씻고 또 씻었다. 순덕은 심재모와의 언약도 없이 불쑥 그를 찾아와선 그가 작전을 떠나자 <깨끗한 몸으로> 심중위를 만나기 위해 미군에게 봉변당하지 않으려고 기혼녀식 낭자머리를 틀며, 반미 지식인 김범우는 미군이 우물가에서 여자를 겁탈하려는 것을 보고 <이 땅 여자의 정조를 지키고자> 구해 주려다 미군에게 붙들려 그의 유창한 영어실력 때문에 원치 않는 미군부대 통역을 맡게 된다. 김범우를 사모하던 타락한 부르주아 여대생 송경희조차도 한강을 헤엄쳐 건네준 김범우를 강가 모래밭에서 유혹하곤 이전에 최인석과의 관계로 자기가 <처녀가 아닌 것> 때문에 그녀에게 관심도 없는 김범우에게 죄의식을 갖는다.

가부장제가 여성을 객체화함으로써 강간을 남성의 재산권에 침해로 받아들였다면, 민족주의는 여성을 민족주체화 함으로써 강간을 민족의 유린으로 받아들인다. 양쪽 모두 여성의 이해관계를 남성의 이해관계에 맞춰 동일시한다는 점에서 일치한다.

3) '좋은 전쟁' 과 여성 소외 : 젠더 방입형의 양면성

(1) 좋은 전쟁/ 나쁜 전쟁, 그리고 여성의 수난

민족 공동체를 비유하는 태백산맥은 백두대간 남북을 잇는 산줄기이다.

그 계곡마다 총소리가 지축을 흔들며 동족의 피로 물들었던 빨치산투쟁이 민족우선, 민족제일주의와 상치되는 역설을『태백산맥』의 빨치산 대장 염상진은 합법적 폭력의 불가피성이라고 했다. 해방일보 기자 이학송이 반민족세력을 처단하고 '역사 바로 세우기'를 위해선 6.25 전쟁은 어쩔 수 없이 일어나야 했다고 말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그것이 '좋은 전쟁'의 근거이다. 우에노 치즈코는 식민지 해방을 위한 투쟁을 '좋은 전쟁'으로, 제국주의 침략전쟁을 나쁜 전쟁'으로 분류하는 사람들에 대해 전쟁에도 '좋은 전쟁'과 '나쁜 전쟁'이 있느냐며 전쟁범죄가 아니라 전쟁=범죄라고 했다.¹⁸⁾ 근대국가가 합법적 폭력의 유일한 집단이라고는 하지만 전쟁은 합리성을 배반하는 광기요, 괴물이다. 『태백산맥』에서 자유주의 개혁론자인 민기홍 기자도 1.4후퇴로 피난길에 오르며 전쟁을 <괴물>이라고 했다. 그것은 아군/적군의 이분법을 강요하고 민기홍 자기와 같은 중도노선의 설 자리를 두지 않는 폭력이기 때문이다. 폭력의 메커니즘은 증오와 복수를 부른다. 이 소설의 또 하나 특징인 폭력의 디스코스는 좌우의 양진영에 공통적인 현상이다.

① “발사!”

총소리가 서로 뒤엉키며 어둠을 깨고 짓었고 손들을 뒤로 묶인 사람들은 순식간에 불빛 밖으로 사라졌다.

“다음 줄!”

열 명의 윗몸이 불빛에 드러났다.

“발사!”

열 명의 윗몸이 불빛 밖으로 사라졌다.”¹⁹⁾

② “좌우당간 그 연놈 셋이서 우리 동지럴 시물 넷이나 죽였시니 우리가 위째

18) 우에노 치즈코, 앞의 책, p.207

19) 『태백산맥』 제6권, p.312

야 쓰겼소. 고 개잡녀러 것덜이 호강 날라리로 목고 살게 뱀들 수야 읍는 일 아 니겼소! 고것덜이야말로 동지덜에 윈수고, 인민에 적인다. 그러서 결사대릴 쫓 소. 세 연놈을 잡아다가 지금까지 현 이약대로 다 실토받고 죽엿제라! 고런 잡것 덜언 총알이 아가와 돌로 쳐 죽엿제라. 그러도 분이 안 삭아 갈갈이 찢엿제라. 그라고 시범쫓로 돌팍 우에 널엿제라."²⁰⁾

위 인용문 ①은 경찰이 관제 반공조직인 보도연맹원을 처형하는 장면이다. 모두 80명의 보도연맹원들이 한 줄에 열 명씩 굴비 두름처럼 엮이어 전 지불에 그들의 모습을 드러내자 마자, 경찰에게 총살당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때 서술자는 드러내다/사라지다의 기표 반복을 총질이 끝날 때까지 일일이 기술하고 있다. 마치 어이없이 죽어가는 생명의 한 순간이나마 텍스트상에라도 머물게 하려는 듯이. 인간의 목숨이 이렇게 살해당해도 되는 어떤 명분이 누구에게 있던 말인가. 이 장면은 평소 온건한 경찰서장 권병제로 하여금 그런 악역을 맡을 수밖에 없도록 궁지로 몰아간 전쟁과 이데올로기의 냉혹성을 보여준다. ②는 지리산 달궁에서 손승호에게 들려주는 여순사건의 주모자 김지회의 최후에 관한 한 빨치산의 증언이다. 고자질한 사람을 돌로 쳐 죽임→ 그 시신을 갈갈이 찢음→ 찢은 시신을 다시 돌바닥에 넣어놓았음을 말하는 그에게서 김지회를 토벌 대에게 신고한 마을주민 세 사람에게 대한 빨치산들의 분풀이성 처형이 얼마나 잔혹한지를 짐작할 수 있다. 폭력이 폭력을 부르는 악순환이 독자를 전율케 한다.

6.25 발발 소식에 남한의 국영방송은 <북괴군 일요일 새벽 불법남침>으로 규정했으나, 벌교 여맹위원장 이지숙에게 그것은 <인민해방의 날>이다. 전직교사인 그녀는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기 위하여 혁명의 피흘림은 기필코 필요한 것이다. 오라. 인민의 군대여!>라고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는 것이다. 지식인 등장인물들은 서로 토론하는 가운데 6.25전쟁의 의미를 짚어

20) 『태백산맥』 제9권, p.322

본다. 전향에서 재전향한 손승호는 6.25를 사회주의 혁명을 통한 민족통일 추구세력과 친일민족반역자에서 신식민주의자로 바뀐 매국적 세력과의 싸움이라고 단정짓는가 하면, 김범우는 전쟁의 피해가 미군 탓이라고 생각한다. 해방일보 기자 이학송은 전쟁주체를 외부적인 요인으로 남에게 떠넘기는 입장에서 보자면, 6.25는 미소 강대국의 이데올로기 대리전쟁이며, 민족 자체의 책임이란 점에서 보자면, 사회개혁의 역사적 필연성 아래 계급적으로 지주제 척결과 민족적으로 친일반민족세력을 처단하는 것인데 그 과제가 좌절된 곳이 남한이며 서울을 <반민족친일도시>라고 지칭한다. 이 대목에서 그는 미국이 친일세력을 비호한 것때문에 전쟁이 일어나게 된 것이라고 말하고 <무고한 사람들이 피를 흘리더라도 역사는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니 이번 전쟁은 우리 민족의 삶에 박힌 모든 갈등과 모순을 일소시키기 위해서 외세와 반민족세력을 동시에 척결하는 계기가 될 것>²¹⁾으로 보았다. 사회주의 민족주의자로 자처하는 이학송은 친일세력을 척결하고 <순수한 우리 민족만의 국가>를 세워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식의 정치적 언술이 얼마나 '그릇된 수사학(false rhetoric)' 인지를 지식인들이 모르지 않았을 텐데 그들은 모두 6.25가 우리 민족에게 '역사 바로 세우기'의 '좋은 전쟁'이었다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 과연 이 전쟁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랬을까.

민족끼리 총부리를 겨눈 그 전쟁의 의미는 호산택과 과수원택의 경우에서 비극적으로 압축돼 있다. 호산택은 염상진, 염상구 형제의 어머니이며, 과수원택은 배운오, 배성오 형제의 어머니로서 형제가 좌우익으로 대립해 이 어머니들은 누구보다도 마음고생, 몸고생을 할 수밖에 없다. 우익의 형운오가 신변의 위기를 느껴 좌익인 동생 성오를 토벌대에게 신고하자 과수원택은 결국 자살해 버린다.

이 무렵의 민족사적 혼란을 동서 냉전의 강대국 대리전이라는 국제 정치 역학에 책임을 돌리든, 민족 내부의 분열로 돌리든, 그것은 사후의 역사적

21) 『태백산맥』 제6권, pp.287-288

평가이고 문제는 술한 젊은이들이 전쟁에 징집되어 전사하고 민족 구성원들이 인명과 재산을 잃었으며 정신적으로 황폐해진 사태가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 이산가족 찾기에 남북 당국의 눈치를 보아야 하는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로 남아있다. 근대국가에서 일어난 이 수치스러운 6.25 전쟁은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국가의 상대화를 경험하게 해 주었다고 할 수 있다. 국가란 우리가 만들기에 따라 여러 형태로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 일제 치하의 국권 상실을 통탄할 때만 해도 그토록 자명하던 국가의 정체에 의문을 가지게 해 주었다는 뜻이다. 한국 현대사는 나라를 되찾았지만 국민을 지키지 못하는 국가가 정권담당자와 동일시되어 구성원들로 하여금 국적 귀속의 선택을 강요했던 해방공간을 통해 오히려 국가의 상대화를 실감하게 해준 것이다. 참으로 비싼 대가를 치르고 발견해 낸 국가의 상대화였다.

그러나 이같은 역사의 분기점에서 『태백산맥』은 여성에게 무엇을 기대했을까. 대지주 집안에서 태어나 빨치산이 된 안창민은 〈역사라는 것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의 삶의 베짜기이되, 그 분기점들은 의지로운 사나이들이 뜻을 합치시킨 슬기롭고 용기있는 작당으로 이루어지는 것〉²²⁾이라고 말한다. 안창민의 말 속엔 〈역사 만들기=사나이들의 일〉로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해 그의 연인 이지숙은 바느질하는 여성들을 상대로, “후방부 사업도 화선투쟁과 똑같은 혁명투쟁입니다. 여성 동지 여러분, 우리가 주인되는 세상을 만들어간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라고 학습시킨다. 여기서 그녀가 〈우리가 주인되는 세상 만들어간다.〉고 할 때의 〈우리〉가 딱히 여성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 수도 있으나, 안창민은 분명히 〈사나이〉라고 말하고 있어, 역사의 주체를 인식하는데 두 사람이 낙차가 있음을 보게 된다. 다시 말해 이것은 『태백산맥』의 남성 민족주의와 젠더의 길항이 드러나는 지점이라고 하겠는데, 민족이 젠더를 대표하거나 대변할 수 없음을 텍스트의 무의식이 폭로해 준 셈이다. 전쟁의 명분이야 어떻든, 결과적으로

22) 『태백산맥』 제5권, p.55

여성들을 팽개치다시피 버려둔 채, 대세에 밀려 황망히 입산한 빨치산들을 필자는 젠더 방임형(gender indifference)으로 일컫고자 한다. 젠더 분리형(segregation)/젠더 참여형(integration)은 차이/평등으로서 페미니즘의 이분법이러니와 젠더 방임형은 남성들의 젠더 무관심에 의해 소외된 여성들을 의미한다.

(2) 여성, 민족의 씨밭이 구실과 세 개의 출산

민족과 젠더는 비늘처럼 겹쳐있어 따로 떨어져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민족담론의 생산에 관여한 남성중심주의는 젠더 중립성이란 미명하에 민족의 이름으로 여성을 억압해 왔다. 그 전형적인 기제가 여성이 무성적(asexual)인 어머니로서 식민지 민족해방의 전사를 재생산하거나 내전에 의한 인구 결핍을 우려한 나머지, 민족 존속의 자궁 구실에 구속하는 모성론이다. 그럴 때 여성은 전통사회의 씨밭이와 다를 게 없다. 『태백산맥』의 내포작가에게도 여성은 씨밭이의 기호다. 원래 한국 전통사회에서 씨밭이란 돈을 받고 자식 없는 집안의 아이를 낳아주는 대리모를 의미했지만 이 작품에선 여성의 역할을 지나치게 모성성에 두고 있어서 하는 말이다. 서술자는 정월 대보름날 처녀들의 지신밟기를 <땅의 음기와 달맛이로 하늘의 음기를 흠뻑 받아 임신을 했다 하면 모두모두 아들을 낳을 몸들이었던 것>으로 진술하고 있고, 염상진은 그의 부하 고두만과 칠동댁의 임신을 성공시키기 위해 한약방을 찾아가는데 한의사는 천연덕스레 남자 / 여자 : 씨 / 씨밭이로 비유하며 아들 낳는 처방을 가르쳐준다.

염상진은 인민군이 퇴각해 야산투쟁에 돌입하기로 했을 때 빨치산 입산자의 자격으로 아이들을 맡길 곳이 있는지 없는지를 기준으로 결정해 준다. 그것이 얼핏 보기엔 젠더 분리형 같아도 젠더 방임형에 다름 아니다. 젠더 분리형은 주어진 고유 영역 안에서나마 여성의 자율성을 보장하지만 젠더 방임형은 남편없는 가정을 꾸리며 아이들 양육을 도맡아야 하는 그야말로 수퍼 우먼을 강요당하는 여성들이다. 빨치산 가장들은 제1혁명전선에서 <남자답게 죽고 살기 위해> 집을 떠나 입산한다. 집집마다 같이 입산하겠다는

여성들 제지시키느라 혹은 달래기도 하고 혹은 위협하는데 강동기는 남양댁에게 손찌검까지 하려 든다. 이는 그들이 제2혁명전선인 후방의 집에 남겨진 여성들에게 닥칠 위험을 번연히 예상하고도, 방치하는 결과밖에 안 된다. 제2혁명전선에 속한 후방지대의 가정은 빨치산들의 보급투쟁의 원천이며 좌익에겐 물자공급을 해 주느라 시달리고 우익에겐 좌익에 부역한 가족이라고 적대시 당하는 이중고를 겪어야 하는 것이다. 또한 여성 빨치산 전사들은 아이들을 친정집에 맡기고 입산함으로써 아기 출산과 그 양육의 부담이 고스란히 모계 대물림이 되고 있다.

“이날 입때겨정 산 것맹키로 살아본 날이 하로도 읊는다, 남정네꺼지 가부렀시니새끼달이나 적으면 몰르겠는다, 줄줄이 까질러왔시니 앞날이 펍펍한 뽕밭이고 진창이여.”

“그러도 워쩨것이여 산목심이야 살아야 헌께 이빨 응동물고 나서서 그 뽕밭에 앞밭 빠지기 전에 뒷밭 널빤지 잃겨감서, 그 진창에 돌덩이 하나씩 쾅겨감서 사는 것이여. ...한 자식 키워내는 홀아비는 읊어도 과부야 열 자식 키워낸다는 말이 안 있드라고 여자 강단이야 하늘이 내린 것잉께 맘 독허게 묵소.”²³⁾

위 인용문은 국방군 노무자로 끌려간 노덕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아내 조성댁이 하는 말에 장흥댁이 자기 남편 김복동이 빨치산 활동 중 재귀열로 몇 달 전에 죽은 줄도 모르고 조성댁을 위로하고 있다. 한 자식 키워내는 홀아비는 없어도 열 자식 키워내는 과부는 있다니 홀아비 / 과부 : 한 자식 / 열 자식의 대구법을 통한 이같은 모성에 신화는 언제까지 동어 반복될 것인가. 강동기의 아내 남양댁은 설날이 되어도 제사에 절을 할 사람이 없어 젓상만 차려놓고 서러워하기도 한다. 제사는 가정내의 남성영역이기 때문이다. 지역에 따라 좀 다르긴 해도 대체로 종부를 제외하곤 여자는 제사 참례를 올리지 못하게 되어 있었다. 남자가 없는 집안에서 제사를,

23) 『태백산맥』 제9권, p.135

더구나 여자가 지낼 수는 없는 노릇이다. 여자는 씨를 낳고 키우는 일 말고 다른 욕망을 가져서는 안 되는 이러한 씨앗 중심 모성주의는 텍스트에 등장하는 세 아이의 출생에서 분명해진다.

『태백산맥』엔 세 여자의 출산이 있다. 소화, 외서댁, 칠동댁이 그들인데 모두가 아들을 낳는다. 하필 왜 세 아이가 모두 아들인가.

소화는 아기 낳기가 소원이었다. 그녀는 정하섭의 아이를 낳고 싶어했다. 그녀의 신령님한테도 빌고 또 빌었다. 그녀는 소원대로 정하섭의 아기를 잉태하였으나 첫 임신은 정하섭의 도피 방조를 자백하라는 청년단장 염상구의 추궁을 받다 고문에 의해 유산되고 만다. 『태백산맥』에서 여성 유린의 가장 참혹한 장면이라 할 소화의 유산은 악마구리같은 폭력배 염상구조차도 진저리를 칠만큼 끔찍하다. 그의 사무실을 유혈 낭자한 피로 물들여 남성의 여성에 대한 공포의 원천이 '여성의 피'에 있음을 새삼 확인하게 된다. 소화는 다시 정하섭을 만나 두 번째로 가진 아기를 옥중에서 분만한다. 그와의 관계가 근친상간인 줄도 모르고 아들을 낳아 정민승이라고 이름 지었다. 소화는 아기가 아들이라는 들몰댁의 말에 감격하며 아이 이름 '鄭民承'은 <인민을 위한 아버지의 뜻을 계승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근친상간으로 父子=兄弟가 되는 피의 엇갈림을 어찌자는 것일까.

감골댁은 빨치산 아들 고두만의 씨를 받기 위해 며느리를 좌익 해방구 울어면으로 보내는 모험도 불사한다. 손승호의 중재로 우익의 심재모와 좌익의 염상진이 합의해 고두만 부부는 울어면에서 합방한 얼마 뒤 임신, 아들을 낳는다. 실제로 있었던 일이라도 믿기지 않는 전시하의 미담이다. 허구의 사건이라면 내포작가가 생각하는 민족개념이 국가단위의 공동체(nationalism)가 아니라 촌락공동체(nativism) 수준이라는 것이다. 서로가 총부리를 겨누고 첩보전이 전쟁의 승패를 갈라 놓는 판국에 어떻게 아군 진영에 사는 적의 아내를 적지에 보내 하루 이틀도 아닌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부부생활을 계속하게 하고 아기를 임신시킬 수 있는가. 상식적으로도 그렇고 예술적 동기화도 그럴 듯하지 않다. 그 사건에 대한 문책으로 심재모는 체포되어 서울로 압송되었다가 풀려나 태백지구로 전출된다. 심재모

의 후임자 백남식은 육사재학 중 여자친구 문제로 하급생과 다툰 일로 진급이 늦어져 절치부심하는 출세지향주의자인데 그는 승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벌교의 운부자집 송씨 모녀와 난륜을 벌이는 파렴치범이다. 그는 송씨를 농락하다 그녀의 딸 말자와 결혼함으로써 송씨를 입막음하고 그녀의 막대한 재산을 물려받는다. 그가 심재모의 신중하고 사려깊은 군인상과는 매우 대조적이어서 주민들은 불안해 하고 그들의 예상대로 백남식이 전공을 쌓으려는 성급한 욕심에 무리한 작전과 거친 언행을 하고 다녀 국방군의 민심 이반을 자초한다. 고두만의 아들 낳기는 성공하지만 심재모의 전출과 백남식의 부임으로 국방군과 인민군의 전략상 중요한 차질을 빚었던 것이다. 감골택이 얼마나 손자연기가 소원이었으면 그런 위험한 도박을 감행하였을까마는 그 에피소드는 곧 내포작가의 민족 보존 의지로도 읽혀진다.

외서택은 염상구의 겁탈에 의해 임신하고 투신 자살까지 기도했으나 결국엔 이모집에서 사내아이를 출산한다. 산모인 외서택은 그 아이가 반가울 리 없었지만 호산택은 염상구의 사생아를 <아들>이라는 것 때문에 흥분한다.

그런데 이 세 개의 출산은 피의 엇갈림이거나 일탈된 생명이라는 점에서, 또 그 아기들이 아들이라는 점에서 딱 시사적이다. 그것은 민족의 재생산, 민족의 씨 지키기라는 내포작가의 희망에도 불구하고 폐륜과 불륜의 아이들로 이어질 이 민족이 영원히 저주받을 집단임을 암시하기 때문이다. 소화는 근친상간인줄 몰랐다고는 하나 엄연히 불륜이고 외서택은 유부녀가 혼외 사생아를 낳은 것이며 감골택은 손자를 보겠다는 일념에서 억지를 써 심재모같은 전도 유망한 청년 장교에게 불명예 전출을 야기시킨 비정상적 임신을 도모하였던 것이다.

한편, 이같은 토착부장제의 퇴행적 정조관념이나 모성성과는 달리 남녀를 불문하고 『태백산맥』의 빨치산들은 모두 금욕적 섹슈얼리티의 화신들이어서 흥미롭다. 철저히 욕정에 탐닉하는 청년단장 염상구, 심재모의 후임자 백남식과 송씨 모녀의 난륜, 마름 허출세의 목골택, 남양택 겁

탈..... 등등, 우익집단의 성적 문란과 너무나 대조적이다. 염상진은 자기네 빨치산 조직사회에선 단 한 건의 섹스 스캔들도 없다는 것에 자부심을 가지며 염상진의 복사판 하대치는 고향 마을을 다녀가면서도 아이들과 아내 들몰대를 찾지 않는 것을 스스로의 당성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김미선은 선배기자인 이학송에게서 남편의 모델을 발견하고 그를 사모하면서 유부남이기에 자기 마음 속에서 그를 밀어낸다. 이학송도 그녀에게 자기를 오라비로 생각해 줄 것으로 못박는다. 천점바구는 김혜자를 좋아하면서도 혁명의지가 손상될까 봐 자기 감정을 억제하며 여자와 자기 꿈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한다. 손승호는 가수 박난희의 간호로 무서운 돌립병인 재귀열에서 소생하지만 그녀를 버려두고 도피했다가 박난희의 죽음을 뒤늦게 알고 죄책감을 느낀다. 강경애는 김동혁이 그녀를 전사가 아니라 여자로 좋아하는 줄 알면서도 모른 척하고 외면한다. 외서택은 타고난 성적 매력 때문에 늘 남성들의 시선을 끌지만 그녀 자신은 염상구의 아들을 낳은 뒤로 남자라면 지긋지긋해 한다. 외서택은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서의 여성성을 거부하는 것이다. 이들의 금욕적 섹슈얼리티는 자식낳기 위해 에로스의 본능이 용인되지 않는 빨치산의 룰에 따른 것으로 이는 빨치산의 집단적 자아 속에서 개인의 이탈욕망에 대한 억압기제라고 하겠다.

(3) 전쟁과 여성의 사회화

전쟁은 남편들의 젠더 방임으로 가족의 생존을 책임져야 하는 고통 속에서 그 여성들로 하여금 사회의식을 갖게 한다.

남로당 보성지구책 염상진은 숲장수인 아버지 염무철과 어머니 호산택의 교육열 덕분에 일제 치하에서 사범학교를 나왔으나 교단에서 일제 식민지 교육을 시킬 수 없다 하여 농사꾼이 된다. 그는 일본인 중도를 상대로 소작쟁의를 벌이다 하대치와 같이 수감, 출옥 후 지하투쟁을 하느라 가정을 돌보지 않아 그의 아내 죽산택은 생계가 말이 아니다. 죽산택은 하는 수 없이 그녀가 제일 싫어하던 베틀에 앉아 길쌈을 하는 등 닥치는 대로 일을 해서 가족을 부양한다. 그녀는 시동생 염상구가 <진돗개>라고 별명을 붙일

정도로 몸피가 크고 기갈이 드세었으나 음식솜씨는 있는 편이었고 자기 주관이 뚜렷한 여성이다. 염상진의 금의환향처럼 6.25 전쟁이 발발해 벌교도 인공치하가 되었지만 그녀는 냉정하게 사태를 파악하며 현실을 직시한다. 남편의 위상으로 보아 여맹위원회에 가입하라는 이지숙의 권유에도 전쟁이 다 끝나면 가입하겠다고 유보할 뿐이다. 좌우익이 대립하며 세상이 뒤바뀌는 판에 어느 한쪽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아야 자식을 보호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인민군의 후퇴에 다시 염상진 부대가 산으로 쫓겨가고 우익 청년단원들이 죽산택에게 보도연맹에 가입하라고 강요하자, 그녀는 “부부간에 정이 통하지 사상까지 통하느냐”고 버틴다. 그녀는 서슬퍼런 토벌대장 임만수 앞에서 “너나없이 공평하게 사는 사상 고런 조청맹기로 달디단 말에 워찌 귀가 솔깃하지 않겠소”²⁴⁾라고 말해 그 포악한 임만수도 말문이 막혀 더 이상 취조를 하지 못하고 그녀를 집으로 돌려 보낸다. 그녀는 공산주의를 환상이라고 비판하면서도 가난에 사무친 사람들에게겐 귀가 솔깃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현실인식에서 오히려 염상진보다 정확하다. 염상진은 김범우의 말을 빌리면 <불꽃같은 정열의 소유자>로서, 정하섭, 하대치 등등 많은 빨치산들을 의식화시키고 자신의 모범적인 행동으로 그들의 우상일 수는 있었지만 자기 아내 죽산택만은 그러질 못했던 것이다. 아니 그는 집에 들러도 아들 광조와 딸 덕순에겐 살가운 아버지였을망정 아내와는 거의 대화가 없다. 그러나 죽산택은 남편의 은신처를 대라는 경찰의 고문에 만신창이가 되면서도 남편이기 때문에 말할 수 없다고 당당하게 대꾸한다.

하대치의 아내 들몰택은 시아버지 판석영감의 말대로 미륵보살같은 심성을 가진 여성이었다. 그녀는 <남편을 하늘같이 높게 알고 남편이 하는 일을 옳은 것으로 여기며> 남편이 없어 겪어야 하는 괴로움을 견뎌낸다. 들몰택은 시아버지가 좌익에 정나미 떨어져 하며 아들 하대치를 만류하는데도 살기등등하게 입산해 버리는 남편에게 불평 한 마디 못한다. 결국 좌익 아

24) 『태백산맥』 제2권, p.197

들을 두었다는 이유로 판석영감이 우익 청년단원에게 물매를 맞아 죽고 그 일로 들몰댁은 지주로부터 소작지를 떼이게 되자, 오갈 데가 없어 아이들을 데리고 소화에게 의탁한다. 인공치하에서 들몰댁은 이지숙의 권유로 여맹에 가입했다가 인민군의 퇴각과 함께 잠시 입산, 체포되어 투옥된다. 그녀와 같이 수감생활을 하던 소화가 옥중에서 정하섭의 아이를 분만하게 되었을 때 해산바라지를 하던 들몰댁이 아들이라며 경사났다고 소리치는 것은 그녀가 남아선호에 대한 인습적 사고에 젖어있음을 나타낸다. 또 들몰댁은 하대치가 조직의 중간 책임자가 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기뻐하나 적극적인 좌익운동가는 아니다. 그녀는 산지기에게 겁탈위기를 당하기도 하면서 빨치산의 아내로서 사는 자신의 처지를 소화에 대한 연대감으로 극복해 간다.

소화는 정하섭을 만날 수 있다는 기대로 입산해 이지숙의 학습을 받지만 의식화에 별로 신명이 나질 않는다. 그녀는 무당일 외엔 바느질이라곤 해본적 이 없어 바늘에 찔려가면서도 전사들이 입을 옷을 만들며 바느질이나 밥짓기가 결코 하찮은 일이 아니라는 걸 깨닫는다. 아울러 자기가 세상을 보는 눈을 새롭게 갖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입산자들 중에는 머슴, 백정, 대장장이, 무당, 선소리꾼이 수두룩했고 그들이 <기본출>이라는 새 이름으로 불리며 당당한 사람대접을 받고 있어 공산주의에 동조하게 된다. 그리고 보니 자기의 무당노릇이 부자들의 탐욕을 도와주는 마름질같아 그녀는 무당폐업을 결심한다. 이 부분은 좀 작위적이다. 왜냐하면 소작인의 낮에 찔려죽은 정현동 사장을 위한 소화의 씻김굿은 관중을 매료시켰고 여맹위원장인 이지숙이 보기에도 신비롭고 아름다웠는데 내포작가는 소화의 계급의식 각성에만 초점을 맞춘 듯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판석영감이 우익 테러로 비명에 간 원한을 풀어줘야겠다는 들몰댁의 씻김굿 부탁을 소화가 허락했다는 것은 굿이 부자들만을 위한 게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며 그것은 굿의 순기능이 아닌가. 내포작가가 소화로 하여금 굿을 포기하게 하면서 시대착오적인 몸씻기 마을굿에는 장황하게 지면을 할애하고 있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부분이 바로 계급과 젠더가 민족주의와 마주치는 현

장으로서는 꼭 문제적이다. 내포작가의 민중민족주의로 계급은 해결될 수 있을지 모른다. 한데 순결 이데올로기며 정조관념으로 젠더 여성을 단속하겠다는 것이 외국군인 상대라는 민족주체성만으로 가능하겠는가. 젠더쪽에서 보면 『태백산맥』의 민족주의는 여성해방과는 거리가 먼 남성중심의 민족주의에 불과하다.

또 빨치산 유서방의 아내 샘골댁은 외서댁의 남편 강동식이 자기 남편을 피어 빨치산이 되었다고 외서댁을 곱지 않게 대한다. 이것은 당시 입산한 남자들 사이에 부화뇌동이 없지 않았음을 짐작케 한다. 입산을 앞두고 부부싸움을 하는 집도 적지 않았다. 실제로 입산 동기는 다양하다. 빨치산들이 반드시 투철한 민족주의 의식이 있어서라기보다 인공치하에서나 염상진의 해방구에서 그들에게 협조하다 대세가 불리해 입산할 수밖에 없는 사람도 많았던 것이다. 유동수도 그 중 한 사람이어서 그는 가족에게로 돌아가고 싶어 후회하다 나중에 오판들의 부대에서 해산을 기다리던 만삭의 소화와 그녀를 돌보던 들몰댁을 신고하고 전향, 산을 내려간다. 그로 인해 두 여자가 경찰에 체포되고 재판 결과, 5년형을 선고 받아 복역 중 소화는 들몰댁의 도움으로 아기를 출산했지만 생후 하루만에 간난애를 조무에게 부탁하고 감옥에서 남은 형기를 채워야 하는 것이다.

샘골댁은 보도연맹에 가입하라고 옥박지르는 청년단원에게 도끼를 내리치며 맞서는 여성이다. 그녀는 남편이 입산한 뒤, “남정네 믿었던 맴이 새끼덜 믿는 맴으로 채워지덜 않고 행하니 비어.....”라고 함으로써 자기의 섹슈얼리티에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다. 아마도 이 작품에서 가장 주체적인 여성을 꼽는다면 죽산댁과 샘골댁이 아닌가 한다. 샘골댁은 남편이 입산해 지주로부터 소작도 떼이고 아이들이 빨갱이 자식이라고 놀림받는 것을 참다 못해 정든 마을을 떠난다.

술도가 정현동의 소작인인 장흥댁(김복동)과 조성댁(노덕보), 목골댁(마삼수), 남양댁(강동기) 네 여자는 정사장이 토지개혁 이전에 땅을 처분하는 농간을 부려 소작권을 잃게 되자 그녀들의 남편이 정사장의 집으로 몰려가 집단으로 그를 폭행한 사건 때문에 구속된 뒤, 남편들을 면회하고

자 나섰다가 거절당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들의 신세를 한탄한다. 그 때 비로소 그녀들은 빨치산 아내들의 고통에 공감하게 된다.

“문딩이 콧구녕결은 눈에 시상, 여자들이 무슨 죄가 있었어.”

조성택이 짧고 빠르게 한참이나 혀를 차 댔다.

“남정네들이라고 무슨 죄가 있나요? 사람맹기로 공평하게 사는 시상을 맹글 겠다고 나선 사람들인데, 고것이 워찌 죄겠소.”

목골택이 입바른 소리를 하고 나섰다.

.....

“참말로 나쁜 애가 터져 이놈에 시상 못살겠소.....더 분한 건 나라가 있는 놈덜 편역드는 것이요.”

목골택의 열기 받친 말을 조성택이 막았다.

“이 사람아, 있는 사람덜이 나라채를 잡았응께 그것이야 당연지사 아니겠어? 자네는 나라 따로 있고 사람덜 따로 있는 것맨치로 말을 허는디, 아 이사람아, 나라가 있는 사람덜이고, 또 있는 사람덜이 나라시.”

“고걸 누가 모르겠는가. 배불르고 식자 들었다는 유식헌 사람들이야 우리겘은 가난한 농새꾼 알기를 바보 멧렁구리로 알제만, 시상살이 쓰고 매운 맛이나, 시상이 순리로 돌아야 혈 이치나, 우리만치 세세히 아는 사람덜이 워디 있었어. 다 암스롱도 심 읍응께 그저 몰른디끼 바본디끼 사는 것이제”

장홍택이 허전한 웃음을 지으며 목골택을 건너다 보았다.²⁵⁾

조성택이 <있는 사람들=나라>, <나라=있는 사람들>이라고 하자, 장홍택은 세상 이치 우리만큼 세세히 아는 사람 없다며 지식인보다 더 잘 알고 있지만 힘이 없으니까 <모른 듯 바본 듯이 사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는 가운데 그녀들은 자신들의 고달픈 생존이 가진 자/ 못 가진 자의 갈등에서 비롯한다는 걸 깨닫고 사회의식에 눈 떠간다. 이렇듯 젠더 방입형은 여성에

25) 『태백산맥』 제3권, pp.139-140

게 수난을 안겨주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그들의 사회화에 이르게 하는 양면성을 지니고 있다.

4) 빨치산 여성전사의 유사남성적 언술 : 젠더 참가형의 남성킴플렉스

(1) 남/녀, 교화자/ 피교화자의 관계

『태백산맥』의 빨치산 여성전사들은 젠더 참가형에 속한다. 참가형이 분리형보다 더 해방적이란 보증을 없다. 이 여성전사들은 남성모델을 지향한 나머지 남자다운 말투며 복장, 행동으로 여성 포기를 보여준다. 남성들은 항상 교화자이며 여성들은 피교화자로 계몽주체는 남성이고 그 대상은 여성인 것이다.²⁶⁾ 그녀들은 남성 교화자의 공산주의 학습을 통해 나날이 계급 의식이 발전한다. 그들의 입산 동기는 일제시대 사회주의 지하운동을 하던 오빠의 죽음이 계기가 된 이지숙(그녀에겐 사회주의자 서상철 선생의 가르침 영향도 있다)과 강경애, 남편에 대한 죄의식이나 피해의식에서 여성 전사가 된 김미선과 외서택 등이 있다. 그 외에도 지식인 여성으로는 천점바구를 사랑하는 김혜자, 손승호를 사모하는 연예인 박난희가 있으나 이들의 입산동기는 구체적으로 밝혀져 있지 않다.

『태백산맥』의 여성전사들은 젠더 참가형이로되, 남성의 교화를 입거나 학습 대상일 뿐, 지도자급 여성이 없다. 이지숙과 외서택같은 중간지도자는 있어도 그들이 여성영웅적인 빨치산은 아니다. 이 소설이 좌파 민족주의를 주제로 하면서도 한국현대사에 실존했던 윤희순(1860-1935)²⁷⁾같은 전설적인 여성 항일 빨치산 지도자를 내포작가가 전혀 언급하지 않은 것이

26) 『태백산맥』의 계몽적 언술은 남/녀 관계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작중인물 정하섭과 하대치, 천점바구는 업상진의 의식화로 그를 스승처럼 존경하며 염상진은 김범우의 형 김범준의 항일투쟁 경력과 인품을 흠모하고 김범우는 학교에 강연하러 왔던 스님의 말에 감동한 나머지 스님조차 <선생님>으로 부르고 싶어한다. 이런 점은 정호웅과 권성우에 의해서도 이미 지적된 바다.

정호웅, 「한, 불성, 계몽성」, 이남호 편, 『한국대하소설 연구』(집문당, 1997)

권성우, 「육망, 허무주의, 그리고 태백산맥」, 『현대소설』, 1990. 가을호

이상할 지경이다.

남성 빨치산들의 입산 동기가 남자답게 죽기 위해서(김복동, 마삼수....) 라면, 여성전사들의 공적 영역 참가는 주로 오빠, 남편과 같은 남성에게 의해 촉발되고 그 남성들의 가르침을 통해 의식화된다. 이 여성 전사들은 주로 남성에 대한 죄의식, 피해의식에서 입산한 탓인지, 남성 콤플렉스를 드러낸다. 먼저 오빠콤플렉스는 이지숙과 강경애의 경우이다.

담양 출신의 교사 이지숙은 일제 시대부터 사회주의 운동을 하다 토벌대에 계 죽음을 당한 셋째 오빠의 영향으로 맑시즘에 경도되며 텍스트 문면에 자세히 언급되진 않았지만 그녀가 자주 회상하는 사회주의자 서상철대장도 그녀를 의식화시킨 인물의 하나다. 그녀는 동료교사 안창민을 동지적으로 사랑하고 있어 아마 그가 그녀를 보통 여성으로 대했다면 연인관계로 발전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만큼 그녀는 열성적 남로당원으로서 외서택과 함께 『태백산맥』의 여성 중간지도자이다. 그녀의 연인 안창민이 토벌대의 총에 맞아 병원에 입원했을 때 그녀가 전명환 원장의 호의로 그를 간호하다 김새를 눈치챈 청년단장 염상구에게 체포되지만 취조받는 자리에서 이념 때문이 아니라 사랑 때문이라며 옷이 찢겨나가는 성고문에도 끝내 자백하지 않는다. 안창민을 사랑하는 것은 사실이나 그의 피격사건은 빨치산 운동 차원이었기 때문에 그녀는 사랑을 위장한 것이 분명했던 것이다. 그러나 염상구는 그녀의 위장술에 속아 여자의 사랑이 그럴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면서 그녀를 방면한다. 이후 더 이상 학교에 근무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판단, 그녀는 기독교 사회주의자 서민영의 야학에 나가 월급도 없는 교사생활을 하는 한편, 좌익세력 확장에 집중한다. 그녀는 소작쟁의에 나섰다 구속된 주민들을 면회하려는 농민들이 거절당했다는 말에 여성들의

27) 尹熙順(1860-1935) : 춘천 출신, 1911년 만주로 망명, 老學堂 학교 운영, 만주 조선인들과 중국인들 사이에 '윤교장'으로 더 널리 알려진 진취적이고 율곡은 여성 독립운동가, 독립군 군자금을 모금하는 등, 40여년 간 의병활동과 독립운동, 1913년 시아버지 유흥식 순국, 1915년 남편 유제원 순국, 시동생과 세 아들 모두 독립운동가 집안, 특히 한글 가사 작품 「아내 의병가」를 지어 항일 독립운동을 선도했다 함.

수다스러운 면을 활용하자며 여성들을 부추겨 경찰서로 몰려간다. 6.25가 발발했을 때 그녀는 〈인민 해방군〉이 온다고 감격해서 눈물을 흘리기도 하는데 인공치하에선 여맹위원장을 지내고 소화와 들몰데을 포섭, 인공이 물러가자 함께 입산한 뒤, 지리산에서 안창민과 결혼식을 올린다. 그들의 결혼은 염상진의 주도면밀한 계획 아래, 위장귀순해서 빨치산을 도우려는 것이었으나 토벌대에 의해 그들의 하산은 좌절된다. 이지숙의 초점화로 된 서상철의 말은 그녀의 말투라고 해도 될 만큼 그녀는 남성모형을 따르려 하고 있다. 그녀가 〈혁명의 본질〉 운운 할 때도 남성빨치산 들의 동어반복을 보는 것 같다. 이지숙의 혁명투사다운 모습은 그녀가 내심으로는 안창민으로부터 '동무'와 같은 〈혁명적 호칭〉보다 〈애정적 호칭〉을 듣고 싶어하면서도 금욕적인 그의 사랑을 수용하는 것에서도 나타난다.

강경애는 소학교를 나왔지만 일제 치하 좌익운동을 하던 오빠 때문에 가족들이 고초를 겪는 것을 못참아 아버지와 오빠를 지키기 위해 마음에도 없는 순사에게 결혼한다. 해방 후 여순사건으로 입산한 오빠가 죽자, 정 없는 남편을 버리고 오빠 뒤편까지 하겠다고 빨치산 전투대를 지원, 이태식의 부대에 배속돼 남원 기관차 전복 사건에도 참가하는 용맹한 여성전사이다. 그녀는 여성적 용모와 자상한 손길로 남성 빨치산들의 사기를 북돋워 인기가 좋은데 그런 그녀를 연모하는 김동혁을 그녀는 짐짓 모른 척하면서 전투에만 충실할 뿐이다.

다음으로 남편이 그녀들의 빨치산 가담 동기가 된 경우는 김미선과 외서택을 들 수 있다. 전라도 지주의 딸 김미선은 해방일보 기자인데 백색 테러에 남편을 잃어 속으로 피해의식을 가지고 있다. 그녀는 또 두 아이의 엄마로서 모성과 당성 사이에서 끊임없이 갈등한다. 인민군의 후퇴로 그녀는 아이들을 친정에 맡겨두고 해방일보의 동료들과 같이 서울을 떠나 평양을 거쳐 만주의 통화까지 피난을 간다. 그녀를 학습시켜 준 선배기자 이학송은 평양에서 냉면을 먹다 전시에 도 태연히 장사를 하는 상인들을 보고 상인은 중간착취자라서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는 점에서 박두병의 중간계급론을 반복하는 사람이다. 둘은 피난길에 본 보랏빛 들국화를 두고 우리

민족의 恨에 관한 토론을 벌이기도 한다. 거기서 이학송은 한을 파토스 차원에서만 논의하는 지식인들을 비판하며 한이 갑오농민전쟁같은 역사전환의 원동력이라고 말한다. 그는 또 김미선이 당성과 모성으로 번민하는 걸 알고 그것들이 별개의 것이라고 위로한다. 즉 그는 당성은 이성적, 모성은 감정적이며 모성은 당성을 더 강화시켜 준다고 했지만 그들이 중공군의 개입으로 다시 남하하는 인민군을 따라 만주에서 서울에 돌아왔을 때 이학송의 처자식은 집을 나가고 없어 그는 김미선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가족들을 찾아 서울거리를 헤맨다. 김미선은 통화에서 눈보라 속에 죽을 고비를 넘기는 동안 이학송의 간호로 살아나 그에게 연정을 느꼈지만 이학송은 오라비로 생각하라며 김미선과의 관계를 분명히 못박는다. 이학송이 <친일반역자도시>로 규정하는 서울이 수복되자, 그들은 체포 구금되고 김미선은 감옥에서 모성을 선택하는 고뇌 끝에 전향수기를 쓴다는 조건으로 사형을 면한다. 그녀가 아이들 걱정에서 전향수기를 쓴다고는 했지만 경찰이 파견한 반공작가 이모의 온갖 회유와 협박에 시달리며 수기의 진척이 느려 애를 먹는다.

외서택은 남편 강동식에 대한 죄의식에서 그리고 <남편의 유업을 잇기 위하여> 異父 남매를 친정집에 맡기고 입산한다. 빨치산 강동식과의 사이에 이미 딸 하나를 둔 그녀가 염상구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그의 아이를 임신하자 투신 자살을 기도했지만 구조되어 할 수 없이 장흥의 이모네로 가서 해산을 했음은 앞에서 얘기한 대로다. 그녀는 염상구의 아들을 낳았으나 젖도 물리지 않은 채 그 아이를 염상구네로 보낸다. 그녀의 친정어머니 밤골댁과 염상구의 어머니 호산댁의 타협으로 두 늙은이는 외서택의 짚을 짜서 릴레이식으로 갖다 나르며 호산댁이 아기를 맡아 키운다. 외서택의 죄의식에는 은신중이던 남편이 자기가 염상구에게 곽탈당한 소문을 듣고 야밤에 염상구를 죽이려고 집에 왔다가 염상구의 비명소리를 듣고 호산댁이 경찰에 신고함으로써 사살된 것 때문이기도 하지만 실은 염상구와의 관계 횡수가 늘어갈수록 자기의 마음과는 달리 어느 새 그녀의 몸이 염상구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즐겼다는 자기검열에도 기인한다. 김범우는 한강가

에서 송경희의 유혹으로 충동적 관계를 가진 뒤 애정이 없어도 성 행위가 가능한 남성의 동물성을 씩씩해 했지만 외서택을 통해 우리는 남성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여성 섹슈얼리티에도 그런 일면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된다. 염상구는 자기 아이를 낳은 외서택에게 일말의 가책을 느껴 정현동 사장이 죽고 없는 낙안택을 협박해 갈취한 쌀 몇 가마니를 주었으나 인공 치하가 되자 그녀는 장흥에서 돌아와 여맹에 가입하고 인민군의 후퇴와 함께 빨치산 전사들이 입산하는데 합류한다. 지리산에 들어온 이래, 그녀 스스로는 세 가지가 변했다고 자평한다. 그것이 학습 토론 덕분에 ① 말하기 발전, ② 산타기, ③ 총쏘기 재미라는 것이다. 그녀는 남편의 유업을 잇는다는 각오와 함께 공산주의 학습을 통해 다듬어진 정신무장에 그치지 않고 군사훈련을 자청하며 남자들과 똑같은 빨치산 여전사로 맹활약한다.

(2) 꽃에 관한 담론과 유사남성적 언술

『태백산맥』엔 꽃에 관한 담론이 많다. 꽃은 사물의 핵심, 정수를 비유하기도 하고 사랑의 매개물, 여성 섹슈얼리티의 상징, 심미성, 실용성, 윤리성 등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다. 외서택의 봉숭아꽃물과 치자염색은 심미성과 실용성이겠고, 김미선의 들국화의 보랏빛 한은 꽃의 윤리성을, 가난한 집 아이들이 굶주리다 못해 먹는 진달래, 감꽃, 아카시아꽃들을 먹는 것은 실용성이다. 소화는 정하섭에겐 들꽃 이미지를 느끼게 했지만 그녀 자신은 동백꽃을 바라보며 정하섭 생각에 눈물짓는다. 소화의 동백꽃과 이지숙, 안창민의 산중 결혼식을 장식한 진달래는 사랑의 매개물이고, 외서택이 염상구의 아이를 임신한 뒤 보이지 않는 <꽃>은 여성 생리의 비유적 표현이다. 외서택은 염상구와의 관계 후 <꽃>이 비치지 않아 절망하고 투신 자살까지 기도하였던 것이다. 염상구의 유년 시절 배고픔 때문에 먹었던 진달래는 손승호의 반 학생 허명길의 작문에서 <미운 진달래>로 형상화된다. 가난한 집 애들은 진달래만이 아니라 감꽃과 아카시아꽃도 먹었다. 부잣집 가시네들은 감꽃으로 목걸이를 만들었지만 굶주린 아이들은 달작지근한 감꽃을 먹을 수 있는 때를 기다렸다. <감꽃은 하나하나 먹는 것보다 입안

가득 넣고 씹어야 제맛이 났다.) 하대치의 아들인 길남이와 종남이의 배고픔을 달래준 것도 감꽃이다.

소화는 이름 그대로 흰 들꽃같은 싸한 향기로 연인 정하섭에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흰빛은 이 땅 농사꾼 아낙들이 들일할 때 쓰는 하얀 머리수건의 빛깔이기도 하고 이학송이 말하는 우리 민족의 한의 빛깔이기도 하다. 이학송은 그런 한이 역사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했다.

소화에게 또 하나의 꽃은 <핏빛 선연한> 동백꽃이다. 동백꽃은 매운 겨울 바람 속에서 피었다가 지는 처연함으로 소화가 정하섭을 기다리는 그리움에 비유된다. 서술자는 떨어져 내리는 핏빛 동백꽃이 그녀가 <떨구는 피눈물이었다.>고 했다. 눈물만이 아니다. 꽃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며 소화는 <그리움으로 가득찼던 살덩이 한 점씩을 토해낸다.>고 했다. 서술층위에서 <핏빛>의 반복제시는 동백꽃이 사랑의 매저키즘에 은유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소설의 꽃에 관한 담론 중에서 가장 감수성이 풍부한 사람은 외서택이다. 그녀가 처녀 시절 유난히 좋아한 꽃은 봉숭아와 치자꽃이었다. 꽃이야 다 곱고 예쁘다지만 그녀에겐 꽃이라고 모두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니었다. 눈바람 속에서 제일 먼저 피는 남도 꽃의 대표인 동백꽃은 한스러운 아름다움은 있었으나 그 잎이 너무 억세어서 싫었고 작약은 흐드러진 꽃송이가 눈이 시리도록 고왔지만 거만해 보여서 친밀감이 느껴지지 않았으며 수선화는 연보랏빛 꽃도 초록 잎새도 정갈해서 좋았지만 너무 연약해 아쉬웠다. 진하게 붉은 칸나는 턱없이 큰 소리로 웃어대는 실없는 가시네 같아 그렁고, 풍성한 수국은 가까이 다가가 보면 쿠린 냄새가 역해 싫었으며, 와와 소리치듯 무더기로 피는 벚꽃은 일본사람의 꽃이라 미움이 앞섰다. 땅바닥에 앙증스레 핀 채송화는 귀엽지만 이쪽의 마음을 담을 수 없었고 장닭의 벼슬같은 맨드라미는 계절이 바뀌어도 시들 줄 모르는 둔감함이 지루했으며 들국화는 그 외로움이 장차의 사나운 팔자가 될까 두려워 뒷걸음질했다는 것이다.²⁸⁾ 이쯤 되고 보면 외서택의 꽃에 대한 심미안이 가히 한 경지에

28) 『태백산맥』 제3권, p.235

이른 사람의 수준이다. 그런 그녀가 다른 꽃들보다 봉숭아를 좋아한 까닭은 손톱에 물들일 수 있어서였고 희고 작은 치자 꽃은 꽃으로보다 열매를 모시옷에 물들이는 염료이기 때문이었다. 처녀 시절 그녀는 결 좋은 모시로 황홍빛 치자물 들인 그 옷을 입고 친정나들이 하는 자신을 상상해 보는 꿈을 가져보기도 했다.

그런데 외서택이 봉숭아 꽃물을 들일 때 <엄지손가락은 아버지같아> 빼 놓고 아홉 손가락에만 물을 들였다는 것은 그녀의 남성컴플렉스가 이미 유년기의 펠리스 공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암시한다. 이는 그녀가 결혼 후 첫 임신을 하고 친정에 다니러 갔을 때 그녀의 임신이 어머니에겐 자랑스러웠지만 아버지 보기가 부끄러웠다는 고백과 동케이다. 아버지에 대한 두려움이 아버지의 딸로 고착되고 싶은 유아기 소녀의 심리적 환상으로 그녀의 무의식에 자리잡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훗날 남편 강동식에 대한 죄값음을 하고자 극렬한 전사로 변신하는 것과도 무관하지 않다. 펠리스 여성이고 싶은 그녀의 욕구는 마침내 용맹무쌍한 전투대원을 자원하게 된다.

① “소대장 동무, 나릴 여자로 시퍼 보덜 마씨요이. 나년 인자 손꾸락에 봉숭아물이나 들입서 좋아라고 시시덕이는 실없는 가시네도 아니고 치자물 치자물 들인 모시 치매저구리 부러바허든 속창아리 읍는 지집도 아닝께라..... 나도 당당한 전사가 되고 잡은께 자꼬 여자로 불라고 허덜 마씨요이”²⁹⁾

② “요런 반동새끼덜아! 납탄이 무서우면 총알놓고 가면 될 거 아니여어! 잡소리말고 총알이나 놓고 가!”

두 주먹을 부르짖은 외서택이 있는 것 목청을 뽐고 있었다. 새빨간 천을 남자머리 위에 매듭진 그녀의 모습은 남자대원들이 무색할 정도로 용맹스럽게 보였다. 그런 외서택을 보면 힘이 절로 난다는 남자 대원들도 있었다.

“야이 이 씨부랄년아! 집구석에서 좇이나 빨제 멀라고 입산허갓고 채수 대가

29) 『태백산맥』 제8권, p.227

리 읊이 나스고 지랄이냐아!”

그 예상하지 못했던 소리에 대원들의 얼굴이 어색하고 민망해져 있었다. 그런데 외서택이 숨을 들이켰다.

“아이 씨부랄놈아! 빨자도 빨 좃이 읊어 입산했다. 니놈 좃대감지럴 뿌랑구가 뽕히게 뽕아줄딩께 읊로 당장에 올라오니라 올라와!”³⁰⁾

위 인용문 ①은 외서택이 입산 후 이지숙의 후방부대에 있다가 군사학교 훈련을 마치고 천점바구 소대에 배속된 뒤에 하는 말이다. ②는 국방군의 5월대공세로 천점바구 부대가 토벌대와 대치한 상황에서 서로 기선을 제압하려는 심리전으로 외서택은 고향을 치며 욕설을 퍼붓는다. 이런 부분이 표준어로 발화되었으면 얼마나 삭막하게 느껴졌을까 싶다. 내포작가는 손승호의 입을 빌어 전라도가 욕설의 고장이 된 것은 지주/소작인들의 갈등이 그만큼 치열했던 데 원인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지만 『태백산맥』의 재미는 풍부한 방언과 비속어의 구사를 빼 수 없다. 서울 사람 심재모는 처음 별교에 부임해 왔을 때, 사투리에 몹시 곤혹스러워한 적이 있을 정도로 로컬리티는 이 소설의 장치이면서 그 지역출신 독자가 아닌 경우, 읽기에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한다.³¹⁾ 그러나 욕은 사투리로 해야 제 격이다. 욕은 말로 하는 매질이지만 여기엔 저주와 악담, 냉소며 해학도 있는 언어적 전략이다. 외서택의 그런 모습을 보고 도저히 봉숭아꽃물 들이며 처녀다운 꿈에 부풀던 여자라고 믿기지 않는다. 남자들도 민망해 얼굴을 들지 못하는 욕설을 토벌대와 맞대꾸하며 싸움의 기세를 올리던 외서택은 드디어 천점바구의 뒤를 이어 인민군 중대장이 된다.

이처럼 『태백산맥』의 빨치산 여성전사들은 남성 못지 않은 불굴의 용기와 언행으로 그들의 언술은 유사남성적(pseudo-masculine)이다. 외서택

30) 『태백산맥』 제9권, p.54

31) 예를 들면, 태백산맥에 자주 나오는 표현인 <아줌잡이 아줌잡이 또 아줌잡이구만이라.>(고맙고 고맙고 또 고맙구면.) 따위를 이 고장 사람이 아니고선 이해하기 어려울 뿐더러 왜 세 번씩이나 반복하는지 그것의 감칠맛을 느끼기엔 무리가 있다.

은 토벌대의 총이 그녀의 귓밥에 맞았는데도 “밥도 안 태이게 혀 준 귓밥 달고 땀기면 머털 것이요. 무겁기만 허제.”라고 태연히 말한다. 피를 흘리는 심각한 총상을 입은 처지에, <밥=귓밥>의 기표상의 동일성으로 말장난을 하고 있으니 어이가 없다. 이는 <강철부대>란 별명을 갖고 있는 이태식의 부대원이 된 강경애도 외서택에 못지 않다. 강경애는 전투대원이 된 그녀를 쓰악해 하는 이태식에게 <너나없이 공평한 세상 만들자는 빨치산들이 남녀평등이라는 것도 모르느냐>고 따진다. 이 때 그녀는 계급해방=여성해방이라고 확신하고 있는 듯하다.

빨치산 여성전사들은 또 미군 정찰기에서 매일같이 흰 눈처럼 쏟아붓는 반공뼀라를 그녀들의 밑씻개로 사용하기도 한다. 뼀라는 제국주의 상품인 동시에 반공 이데올로기를 상징하는 것으로 그것을 여성전사의 생리대로 사용하면 반제국주의와 반공이념의 전도를 뜻하는 것이다. 그같은 여성전사들의 유사남성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예가 지리산 계곡에 앉은 채 얼어죽은 여성 빨치산이다. 빨치산은 <굶어죽고, 얼어죽고, 총맞아 죽는다.>던가. 해서 빨치산은 세 번 죽는다고 했다. 이름 없는 그 여성전사는 『조선공산당사』를 품에 안고 죽어있었다. 자못 숙연한 빨치산 여성전사의 죽음이다. 하지만 그녀들의 최후가 비참하다고 해서 페미니즘이 그것을 비껴갈 수는 없다.

요컨대, 대하소설 『태백산맥』이 거둔 빨치산의 진정성과 민중 민족주의의 형상화, 꽃에 관한 담론을 비롯한 시적 감수성, 지리산을 비롯한 소설공간적 지지(topography)의 자연생태적인 국토애, 서술층위에서 초점주체의 다변화를 통한 다양한 인식 편차, 전라도 방언의 탁월한 구사, 따위 텍스트의 여러 미덕에도 불구하고 여성사적 측면에서는 계급투쟁을 우선시하여 여성 억압적 요소를 등한시한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이 작품이 남성에게 맞춰진 남성민족주의로서 젠더를 초월하진 못했다는 뜻이다. 어차피 민족이 젠더를 대변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면 『태백산맥』에서 민족주의적 여성은 누구인가. 소화인가, 들몰댁인가. 이지숙, 김미선인가, 강경애, 외서택인가. 아마 이들 모두일 것이다. 그러나 페미니스트 입장에서 긍정적인 젠더여성은 죽산댁, 샘골댁 정도이다. 그 이유는 이들

이 주체적인 판단으로 경찰의 보도연맹 강압에도 굴하지 않았으며 인공치하에서 여맹가입도 유보하는 등, 이념적 균형감각을 지녔고 여성 섹슈얼리티에도 솔직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두 사람은 너무 과격해서 페미니즘적 이상형으로 삼기엔 좀 석연치 않다.

3. 맺음말

『태백산맥』의 문학사적 의의는 해방정국과 6.25 휴전회담 동안 남로당계 공산당원으로 활약하다 한국현대사에서 공백으로 사라지다시피 한 빨치산의 진정성을 재현한 데 있다. 작가 조정래는 이들을 자신의 민족이념인 '민중민족주의'에 투신한 실천자들로 보고 전남 해안의 별교지방을 작품의 주요 무대로 삼았다. 컨텍스트 차원에서 그것은 1980년대의 정치적 민주화운동과 분단 극복을 위한 민중의 통일의를 반공이데올로기에 악용하는 체제 도전적인 작품이라는 점에서 진보의 드라마이다.

아울러 해방정국과 6.25 전쟁 동안 좌우익 이데올로기의 첨예한 대립이 중도 좌파의 입지를 허용하지 못하는 당대 현실을 통해 개인의 귀속을 강요하는 억압장치로서 국가와 그것의 상대화를 추체험하게 해 준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무엇보다 풍부한 전라도 방언과 비미적 토속어의 능숙한 구사는 소설『태백산맥』의 어휘사전을 따로 만들어야 할 정도로 값진 문학적 성과이며 별교라는 남도 바닷가의 로컬리티를 형상화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이 작품은 빨치산을 미화했다는 비판을 면하긴 어렵다. 1948년 10월 20일 여수 순천에서 일어난 그 역사적 사건을 서술자는 〈여순사건〉, 좌익은 〈여순병란〉, 우익은 〈여순반란〉으로 일컫는 점으로 미루어 서술자의 시각은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대체로 좌익의 입장을 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도 내포작가는 민족을 의식하지도 않는 주민들에게 남성지식인 등장인물들의 계몽성 열변에 의한 민족주의 덮어씌우기, 지식인=착취계급, 서

을=친일민족 반역자 도시라는 극단적 사고와 이념적 경직성, 관념적 민족주의론, 잔혹한 폭력의 디스코스, 6.25 발발에 대한 북한의 책임을 모호하게 처리한 점, 따위로 논란의 여지가 많다. 특히 민족주의와 젠더의 길항은 『태백산맥』의 진보성에 의문을 갖게 한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① 텍스트 문면에 기표화된 <빨발, 꼬막>은 젠더화된 노동과 섹슈얼리티의 중첩상징으로 『태백산맥』의 남성민족주의, 이성애중심을 보여준다.
- ② 미군에게 강간 당한 여성들의 <몸씻기 마을굿>은 현대판 환향녀의 이미지로서, 여기에 나타난 정조 이데올로기는 이 작품이 젠더차원에서 선행적 전통애착임을 의미하고 것처럼 성애화된 민족주의의 델레마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언표가 <죄없는 죄인>의 모순어법에 걸려 있다.
- ③ 빨치산의 '역사 바로 세우기' 라는 민족주의적 배타성이 초래한 '좋은 전쟁' 이나 불가 피한 폭력도 그들의 명분일망정, 모든 전쟁은 죄악임을 텍스트의 잔혹한 폭력 장면과 여성의 수난이 입증하고 있다. 특히 빨치산 전사들은 젠더 방임형으로 여성의 희생을 강요 하였는데, 그것이 한편으로는 젠더 여성의 사회화를 가져온 양면성이 되기도 했다.
- ④ 『태백산맥』에 제시된 여성의식은 민족의 재생산을 위한 무성적(asexual) 모성에 두고 남성=민족의 씨 / 여성=씨받이 구실로 여성을 기호화하고 있다.
- ⑤ 『태백산맥』의 빨치산여성전사들은 젠더 참가형으로 남성의 돋보기 인물(hoil-character)로서 서사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녀들의 입산 동기가 남성에 대한 죄의식이나 피해 의식에서 비롯된 남성 콤플렉스를 드러낸다. 이 여성들은 남성 빨치산들의 복제품이며 그들의 언술 역시 남/녀, 교화자/ 피교화자 관계와 더불어 유사남성적이다.
- ⑥ 페미니즘적 견지에서 『태백산맥』에 등장하는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여성이 없지 않으나 내포작가의 젠더 전략상 그다지 바람직한 여성으로 입상화되진 못한 것 같다.

Abstract

Nationalism and the Woman Image of *Taebaeksanmaek*

Ahn, Sook-Won

The literary historical value of *Taebaeksanmaek*, written by Joe, Jung-Rae is to have represented the partisans' reality and revealed the red-complex that means communism in Korean literature. The partisans were so-called, the communists of the Workers' Party of South Korea during the Korean Liberation period.(the mid 20C). The writer, Joe had recognized them as the performers of Popular Nationalism and described them in his novel. Its main setting is Bulgyo where is located in south-west coast of Junnam-Province around Mt. Giri. The text showed us many partisans who had done their political actions, terrorism against the anti-communists in the ideological conflict of Left-Right Wing at that time and Joe has agreed with the Left Wing. The significance of it is a progressive drama in the context which the anti-communists misused to oppress the reuniting will and the movement of democracy of Korean people in the 1980s. Also, the novel deserves to evaluate to make us have indirect-experience about the control and the relativity of nation that tried to force the individuals to belong to it in the contemporary political situation which did not allow Centre-Left.

I would like to point out that it stressed class struggle, neglecting gender, even though a roman-fleure, *Taebaeksanmaek*, expressed the partisans' truth(the Popular Nationalism), breaking the taboo of red-

complex in South Korea, the fluent dialect of Junnam-Province, the poetic sensibility about many flowers including a topographical ecology and so on, This novel focused on male-nationalism, while woman image was only foil-character of man. The female partisans were especially pseudo-masculine in their discourse and manner.

Anyway, nationalism does not speak for gender. Neither Popular Nationalism, nor traditional nationalism does.

key word : gender, Popular Nationalism, male-nationalism, pseudo-masculine

▶ 위 논문은 2월 15일 투고되어 소정의 심사를 거쳐 5월 10일 게재가 확정되었음.